

오늘, 회사 가기 싫으신가요?



“제가 이걸 왜 해야 하죠?” “자네도 내 나이 되면 이해할 걸세.”

대한민국 1천680만 직장인이라면 이 두 가지 대사는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하다.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면 철딱서니 없는 신참, 가운데서 치이고 또 치이는 중간 관리자, 그리고 꼰대로 불리는 상사까지 대부분 비슷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KBS 2TV 화요일 ‘회사 가기 싫어’는 드라마인 듯 다큐멘터리인 듯 ‘양다리’를 걸친 채 현실 속 회사를 생생하게 조명한다. 지금은 잠시 휴식기인 MBC TV ‘무한도전’에서 선보인 ‘무한상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현실에 가깝다.

작품 배경이자 문구류 회사인 한다스는 전형적인 ‘오피스’다. 이 회사의 하루는 매일 오전 8시 50분 ‘한다스 체조’를 직원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직급별로 사무실 내 칸막이 높이가 서로 다른 것도 깨알 같은 현실 묘사이다.

등장인물들 역시 어느 조직에 대입해도 부합한다. 매주 사내 문화 개선을 외치지만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사부터 사장의 아우라가 느껴져 너도 나도 피하는 사장 비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조용한 부조리를 실천 중인 부장, 부하들에게는 무능하고 상사들에게는 충성스러운 과장, 일 처리는 완벽하지만 인간미 없는 대리, 열정 넘치는 초고속 승진 차장, 막내 딱지를 떼기만 기다리는 사원, 눈치를 주든 말든 일단 퇴근하고 보는 신입까지...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보고 있으면 은근히 감정이 동요한다. 모든 에피소드가 내

KBS 2TV ‘회사 가기 싫어’

캐릭터·에피소드

현실감 충만

자신을 객관화하고

상대 이해하는 시간

일, 네 일, 우리 일인 덕분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갈등부터 직장 내 라인 타기까지 모든 조직이 겪는 일들이다.

3년 차 사원 유진(소주연 분)은 1990년대생 신입사원 지원(김관수)이 입사하면서 드디어 막내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컷대 높은 지원에게 돌아오는 말은 늘 “제가 왜 해야 하죠?”이다. 그러는 사이 과장 상숙(김중돈)은 “빨리 자료를 넘기라”며 성화다.

하루살이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조직에 갑자기 등장한 30대 차장 백호(김동원)는 “노 테 린다스, 포기하지 말자는 제 좌우명이다”라며 밝게 인사한다. 부장 영수(이황의)가 제일 긴장한다. 백호가 자신의 책상을 옆으로 밀어내자 백호와 신경전을 벌이기까지 한다.

바로 옆 동네 회사, 나아가 우리 회사를 옥상에서 관찰하는 듯한 느낌에 더해, 이따금 화면에 등장하는 사원들의 인터뷰는 점심 후 카페에서 동

료들과 수다 떨며 상사, 후배를 뒷이야기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또 예상치 못한 시점에 등장하는 내레이션, “직장인들은 모두 권력의 피라미드를 사무실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같은 대사는 오늘 나의 하루를 돌아보게도 한다.

물론 이 작품에 위로와 공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B급 감성’ 가득한 자막과 실험 정신 가득한 현실 풍자 같은 요소는 웃음을 선물하며 드라마에 가까운 에피소드들에서는 감동도 준다.

“회사 가기 싫어”를 연출하는 조나은 PD는 23일 “사람 사는 데 정답은 없고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도 없다”라며 “서로 다른 입장을 살피면서 나를 객관화해보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감을 더 주고 싶어서 다큐멘터리 룩을 선택했다. 캐릭터들은 직장인 자문단을 통해 만들어진 내용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시대성(1990년대생 신입사원)과 판타지(시니어인턴)를 반영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넣기도 했다”라며 “구조조정의 칼을 맞은 ‘한다스 영업기획부’의 생존기”라는 전체 플롯이 있지만 화보로도 즐길 수 있게 한편한편 완결된 구성을 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 ‘공감’이다. 이 작품을 보는 것이 당장 내게 닥친 사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못할지라도, 늦은 밤 맥주 한잔하며 받는 이 질문은 마음을 울린다.

“당신은 왜 회사에 가기 싫으신가요?”
/연합뉴스

트와이스, 성숙미로 ‘팬시’하게

새 미니앨범 ‘팬시 유’ 발매...11연타석 히트 도전

걸그룹은 보통 데뷔 5년을 안팎으로 이미지 변화를 꾀하기 마련이다.

올해로 데뷔 5년차가 된 트와이스도 전작과의 전환점이 될 시도를 했다. 상큼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털어내고, 시크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가미했다. 일곱 번째 미니앨범 ‘팬시 유’ (FANCY YOU)를 통해서다.

22일 오후 4시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신보 쇼케이스에서 멤버들은 컬러풀한 색채 대신 올블랙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머리 스타일도 파스텔톤으로 가라앉혔다.

“늘 밝고 에너지 넘쳤다면, 이번엔 좀 더 성숙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밝은 모습만 보여드려 다소 질리지 않을까 고민했거든요. 기존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시크한 느낌을 섞으면 색다른 모습이 나올 것 같았죠.”(지효, 나연)

채영도 “트와이스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팬시 유로 컴백하면서 새로운 전환점, 반항점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15년 데뷔 이래 발표곡마다 사랑받은 트와이스는 이번 타이틀곡 ‘팬시’ (FANCY)로 11연타석 히트에 도전한다

미나는 “그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노래를 불러 사랑받은 것 같다”며 “또 무대에서 팀워크가 좋아 좋아해 주시는 것 아닐까”라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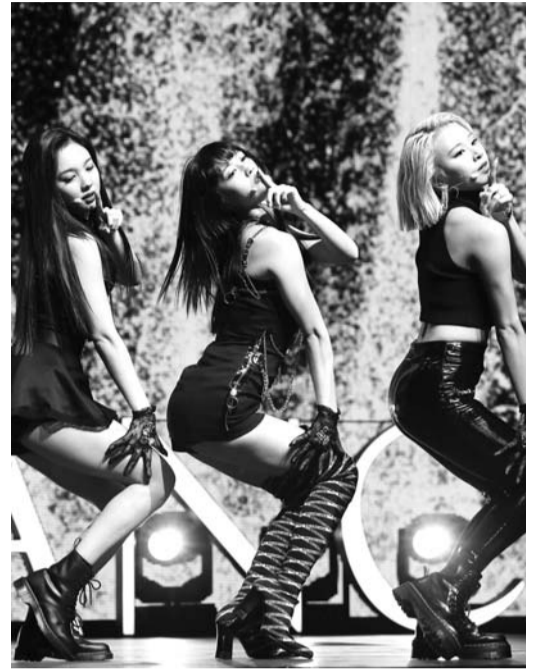
팝 댄스곡인 ‘팬시’는 데뷔곡 ‘우아하게’ (OOH-AHH하게)부터 ‘치어 업’ (CHEER UP), ‘TT’, ‘라이키’ (LIKEY) 등 트와이스 대표곡을 만든 작곡팀 블랙아이드필츠, 전곡과 다시 손잡고 완성했다.

나연은 “팬시”를 처음 듣고 멤버마다 반응이 달랐다며 “하지만 우리 목소리를 녹음하고서 모니터 할 때는 멤버들 모두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콘셉트 변화와 보조를 맞춰 노랫말도 한층 당당하고 도발적이다. ‘팬팡이 조금도 난 겁나지 않아’, ‘누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지금 너에게로 갈래’ 등 한층 능동적인 여성상이 표현됐다. 보컬 부분에서도 새로움을 주고자 서로 파트를 바꿔 부르고, 재 녹음도 수차례 했다고 한다.

특히 수록곡에선 멤버들 참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 눈길을 끈다.

지효가 ‘걸스 라이크 어스’ (GIRLS LIKE US), 모모가 ‘핫’ (HOT), 사나가 ‘턴 잇’ (TURN IT



UP), 채영이 ‘스트로베리’ (STRAWBERRY) 작사에 각각 참여했다.

지효는 “꿈에 도전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에게 22살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말했다.

사나는 “원스(팬클럽)를 생각하며 쓴 곡”이라고, 채영은 “딸기가 아무리 맛있게 가공돼도 본연의 새콤달콤함이 더 맛있듯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뻐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트와이스는 일본 오사카 출신 멤버가 셋(사나, 모모, 미나)으로 일본에서도 도쿄돔을 채우는 정상급 걸그룹으로 사랑받는다. 이달 마친 K팝 걸그룹 최초 돔투어로 22만 관객을 동원하는 저력을 보였다.

쯔위는 “돔투어를 하게 돼 감사하고 영광이었다”며 “무담은 컸지만 서기 어려운 무대인 걸 알아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떠올렸다. 이들은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월드투어로 세계 팬들과 만난다.

5월 25~26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15일 태국 방콕, 29일 필리핀 마닐라, 7월 13일 싱가포르,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19일 멕시코시티 등 북미 4개 도시를 포함해 세계 9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을 펼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뱅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닥터 프리즈너(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더 뱅커(재)	00 SBS 12 뉴스 40 KBC 저녁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침착한 주말 X 마리텔 V2 (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차총우돌 만국 유망기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구해줘! 홈즈 1~2부 스페셜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파파족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55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법률 365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55 SBS 8 뉴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차총우돌 만국 유망기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재동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뱅커	00 빅이슈
[11]	35 UHD 슈퍼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빈지노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타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꼬마버스 타요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15 꼬마하어로 슈퍼팩
07: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돌나물 사과샐러드와 돌나물 비빔국수〉	19:5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미래교육 플러스(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미니특공대 X	14:30 낚장고 나라, 코코몽	〈꼭 한번은, 복유림 3부 가장 아름다운 밤 오로라〉
08:45 알라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길 끝, 마을이 보인다 3부 해인길 끝, 낭만에 대하여〉
09:30 몰랑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15 출동! 슈퍼왕스	22:45 극한직장
10:30 한국기행(재)	16:30 알라라 뿌우(재)	23:55 EBS 초대석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징어 고추장찌개와 콩자반〉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 (음 3월 20일 辛卯)

<p>子</p> <p>36년생 아예 기대하지 마라. 48년생 겹치면서 매우 분주한 하루가 되겠다. 60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72년생 가변적인 상황이나 탄력적으로 대처하자. 84년생 답답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아비로소 개탄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48</p>	<p>午</p> <p>42년생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 되겠다. 54년생 지속적인 노력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66년생 불편하다면 수정하거나 정리해 버려도 무리가 없다. 78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90년생 짐작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81, 92</p>
<p>丑</p> <p>37년생 접해보지 못 했던 별 희한한 일을 당하게 된다. 49년생 기회가 밝게 빛나리라. 61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73년생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85년생 당연시 해왔던 점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60, 19</p>	<p>未</p> <p>43년생 인간힘을 쓰리라. 55년생 의외로 심하게 끝나 버릴 수도 있다. 67년생 평소의 신뢰 관계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이다. 79년생 변동으로 인해서 적응하는데 상당한 힘이 들겠다. 91년생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16, 02</p>
<p>寅</p> <p>38년생 연임을 흥망몰에 더러워지지 않는 법이다. 50년생 분수와 적에 맞아야 순조로울 것이다. 62년생 굳이 내색하려 한다거나 숨기려 하지 마라. 74년생 지나친 것은 소비가 될 뿐이다. 86년생 결가지는 차치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52, 60</p>	<p>申</p> <p>44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56년생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다. 68년생 일체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낫다. 80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92년생 개선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3, 21</p>
<p>卯</p> <p>39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1년생 일상에서 완전히 탈피 할 수 있는 파격이 아니다. 63년생 소모적인구면은 피해야만 한다. 75년생 내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87년생 집착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24, 40</p>	<p>酉</p> <p>45년생 경쟁력과 운유책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7년생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69년생 전환하기에는 늦은 길목에 이르렀다. 81년생 일취월장의 진척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93년생 기준과 체계가 서야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0, 06</p>
<p>辰</p> <p>40년생 경미하다면 대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52년생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64년생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76년생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8년생 안도의 한숨은 들리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행운의 숫자 : 12, 17</p>	<p>戌</p> <p>34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46년생 턱이 높은 이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이 있다. 58년생 복잡다단한 단계가 접점산중으로 쌓여 있다. 70년생 단계적으로 해나가 필요가 있느니라. 82년생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83</p>
<p>巳</p> <p>41년생 파스한 행운의 햇살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53년생 무리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65년생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머지않아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77년생 멋스럽다. 89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6, 58</p>	<p>亥</p> <p>35년생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고를 볼 필요가 있다. 47년생 할 일이 밀려 있으니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59년생 한 순간에 급속히 변하고야 말 것이다. 71년생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 균열이 염려된다. 83년생 희소성으로 인해 서가지가 급상승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8, 6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